

## V.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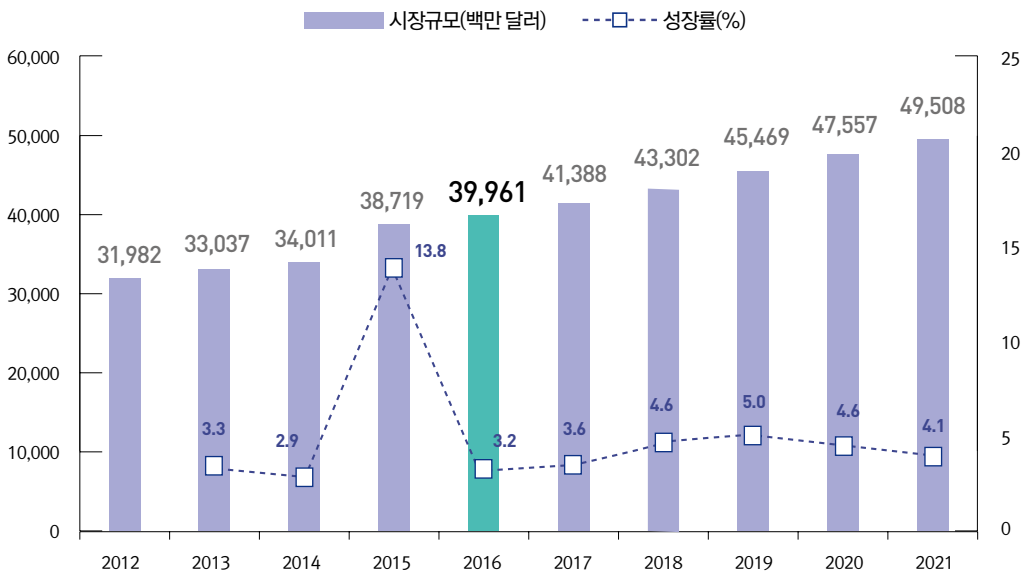
### 극장 원도 단축과 프리미엄 VOD의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 1. 글로벌 영화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온라인비디오 시장의 빠른 성장

- 2016년 기준 글로벌 영화시장은 전년 대비 3.2% 성장하는 데 그침. 이는 안정기에 접어든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 둔화와 ‘넷플릭스(Netflix)’ 등 가입형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화산업 진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5년 13.8%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영화시장은 2016년 399억 6,120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에 그침
  - 중국 영화시장이 성장기를 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성장 폭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지만, 방송에 이어 영화시장에서도 ‘넷플릭스’ 등 가입형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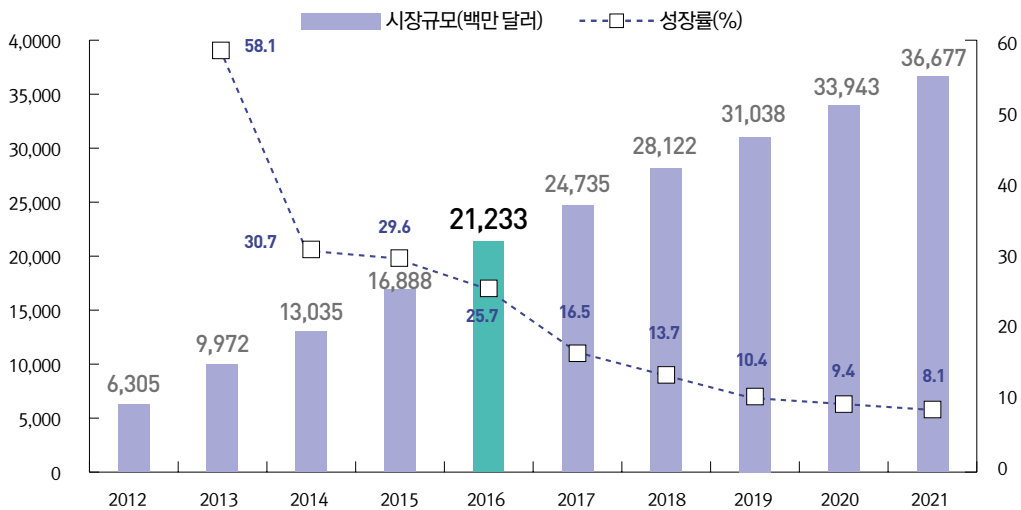
그림 | 2012~2021 글로벌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PwC(2017),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 반면 2016년 기준 온라인비디오 시장은 전년대비 25.7%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온라인비디오 시장은 전년 대비 25.7% 성장한 21억 3,300만 달러를 기록
  - 특히 향후 2021년까지 글로벌 영화시장이 연평균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비해, 온라인비디오 시장은 연평균 11.6%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 2012~2021 글로벌 온라인비디오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PwC(2017),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 2. 가입형 OTT 서비스의 영화산업 진출과 영화 제작 스튜디오의 PVOD 서비스 도입 시도

- 극장 원도는 극장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의 극장 개봉 시기와 다른 플랫폼 출시 시기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의미하며, 최근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VOD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미국 내 극장 원도 단축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극장에서 영화가 개봉한 후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데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이 기간을 극장 원도(Theatrical Window) 기간이라고 하며, 이는 극장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비디오, DVD, 방송, VOD 등 다른 채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임
  - 그러나 2016년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극장 원도 단축을 시도하려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VOD 플랫폼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아이보이(iBoy)>와 <샌드캐슬(Sand castle)>



출처 :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 극장 원도 단축 시도의 배경에는 자체 영화 제작을 통해 영화 업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가입형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와 극장 원도 단축을 통해 '안방 시청자' 쟁탈에 나서고자 하는 영화 업계 수요가 맞물려 있음
  -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 레드(Youtube Red)', '홀루(Hulu)',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등 글로벌 구독형 OTT 서비스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이 도입
  - <나르코스(Narcos)>,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등 다수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큰 성과를 거둔 '넷플릭스'는 영화 산업에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
  - 유명 감독과 작가를 섭외해 제작한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영화인 <ARQ>, <아이보이(iBoy)>, <샌드캐슬(Sand Castle)>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었음
-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VOD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입형 OTT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영화의 VOD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선출시 VOD를 30~50달러의 프리미엄 VOD(Premium VOD, 이하 PVOD)로 제공하여, 극장 업계와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영화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임
  - '넷플릭스'를 위시한 가입형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가 화제가 되자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케이블 TV 등 VOD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극장 원도 기간의 단축을 주장하게 됨
  - 현재 미국에서는 90일의 극장 원도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영화 순환 주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 영화 제작 스튜디오는 영화가 개봉되고 화제가 되었다가 점차 관심이 사라지는 순환 주기가 약 4-6주 사이인데, 이 기간 안에 높은 가격의 PVOD 형태로 영화를 판매한다면 부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이 수익을 극장 업체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자사 콘텐츠만을 방영하는 채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상으로도 충분히 PVOD 출시가 쉬운 '디즈니(Disney)'를 제외한 모든 미국 대형 영화 제작 스튜디오들이 극장 원도 단축을 주장해왔음
- 특히 케이블 사업체 '컴캐스트(Comcast)'를 보유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와, 'AT&T'와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가 PVOD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넷플릭스' 또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 개봉 시점을 온라인 릴리즈 시점보다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음

### 3. 극장 사업자들의 반발

- 영화 제작 스튜디오들이 PVOD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극장 사업자들은 설득해 왔으나, 극장 사업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발해 왔음. 특히 수익 분배 비율과 불법 복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극장 사업자와 PVOD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30~50달러 정도의 가격 책정이 필요한데, 1편에 30달러가 넘는 PVOD 요금은 월 10달러 내외에 불과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홀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수익 배분 비율도 협상에 있어서도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극장 사업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PVOD 콘텐츠의 불법 복제 가능성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PVOD는 극장의 영화 순환 주기 내에 영화 콘텐츠가 웹상에 공개되는데 현실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는 극장 원도 단축이 어렵다는 것이 극장 기업들의 주장

### 4. 세계 최대 극장 체인 'AMC' 의 최근 입장 변화

- 최근 세계 최대 극장 체인 '아메리카 멀티 시네마'가 극장 원도 단축과 PVOD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아메리카 멀티 시네마(America Multi-Cinema, 이하 AMC)'의 CEO 아담 애런(Adam Aron)은 최근

자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제작 스튜디오들을 대상으로 VOD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상호간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 언급

-아담 애런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제작 스튜디오들이 프리미엄 비디오를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M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처럼 글로벌 대표 극장 체인인 AMC가 극장 원도 단축과 PVOD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보이자, 미국에서 최근 관련 논의가 급 물살을 타고 있음

- AMC의 입장 전환에는 미국 내 프리미엄 영화관의 보급 확대와 '다렌 완다 그룹'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AMC의 이러한 판단은 프리미엄 상영관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관이 집에서 VOD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시청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 'AMC'와 '완다시네마'

**amc**



출처: 각사 공식 홈페이지

그림 | AMC의 프리미엄 상영관



출처: AMC 홈페이지

- 이런 변화는 AMC를 인수한 모기업 ‘다렌 완다 그룹(Dalian Wanda Group)’의 지배구조와 전략 변화도 원인임. ‘다렌 완다 그룹’은 ‘AMC’와 ‘카마이크(Carmike)’ 인수를 통해 영화 극장 체인의 과점을 확보하면서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음
- 또한 ‘다렌 완다 그룹’의 IR 자료에 의하면 극장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PVOD 시장 진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음

## 5. 미국 시장의 극장 원도 단축 및 PVOD 도입 가속화가 글로벌 영화시장에 미칠 영향

- 투자 전문가들은 2017년 말, 늦어도 2018년 초에는 미국 영화시장에 극장 원도 단축 및 PVOD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AMC’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은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2017년 말, 늦어도 2018년 초에는 극장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90일에 이르는 극장 원도 기간 단축과 PVOD 서비스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미디어 전문 리서치 기업 모펫네이션스(Moffet Nathanson)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피시먼(Robert Fishman)은 2017년 6월 넷플릭스와 PVOD 도입으로 미국 극장들이 연 매출 36억 달러와 이익의 2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전망에 따라 미국 대형 영화관 체인 ‘시네마크(Cinemark)’와 ‘리갈(Regal)’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음
- 미국 영화시장의 변화는 글로벌 영화시장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극장 원도 단축 및 PVOD 도입이 이루어지면 글로벌 영화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영화시장에서 극장 원도 단축 및 PVOD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글로벌 전역의 영화시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음. 봉준호 감독의 ‘옥자’ 등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의 프랑스 칸 영화제 상영이 결정되었을 때 프랑스 극장 사업자와 영화계의 반발이 거셌던 예도 있었음
  -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영화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할리우드(Hollywood)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생산 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영화시장의 변화가 곧 글로벌 영화시장의 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극장 원도 단축과 PVOD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미국 영화시장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PwC(2017),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Deadline, AMC Theatres Boss On Studios' Push For PVOD: "We Have A Seat At This Table And The Talks Underway Are Intriguing", 2017.05.08.

Deadline, Studios Will Insist Theaters Accept Profit-Depressing PVOD Terms, Analyst Warns, 2017.06.12.

Screendaily, Analyst predicts major film studios will offer premium VOD by early 2018, 2017.06.12.

Slashfilm, Netflix vs. Cannes: Movie Theaters Take the VOD War to the Film Festival Scene, 2017.05.12.

Deadline, What's At Stake In Warner Bros & Universal's Premium VOD Talks, 2016.12.02.

Homemedia Magazine, AMC Theatres Interested in PVOD on Its Terms, 2017.05.08.

Deadline, AMC Entertainment CEO Talks Up Premium VOD & Rebranding Plans, 2017.02.28.

Deadline, Studios Will Insist Theaters Accept Profit-Depressing PVOD Terms, Analyst Warns, 2017.06.12.

The Verge, Netflix is willing to put its films in theaters — but not before online release, 2017.04.17.

The Hollywood Reporter, New Hollywood Panic and Pressure Over Rival Premium VOD Plans, 2017.03.27.

Dalian Wanda(2017), Annual Report 2016

연합뉴스, 세계 1억명이 보는 넷플릭스, TV 이어 영화 위협, 2017.06.18.